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의 부모 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양 수 진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양 수 진

인 준 서

양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1. 애착

- 1) 애착이론 6
- 2) 부모애착과 성인애착 9

2. 부모애착, 자아분화와 성인애착의 관계

- 1) 자아분화의 개념 12
- 2) 부모애착과 자아분화 14
- 3) 자아분화와 성인애착 15

3. 부모애착, 자아탄력성과 성인애착의 관계

- 1) 자아탄력성의 개념 15
- 2)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17
- 3) 자아탄력성과 성인애착 18

III. 연구 모형 및 연구 문제

- 1. 연구 모형 20
- 2. 연구 문제 21

IV.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2
2. 측정도구	
1) 부모애착 척도	23
2) 자아분화 척도	24
3) 자아탄력성 척도	26
4) 성인애착 척도	27
3. 자료 분석	28

V. 연구 결과

1.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29
2. 구조방정식모형	31
1) 자아분화 매개모형	32
2) 자아탄력성 매개모형	36

VI. 논의

.....	40
-------	----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2
<표 2> 부모애착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4
<표 3> 자아분화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5
<표 4>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6
<표 5> 성인애착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7
<표 6>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30
<표 7> 자아분화 매개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33
<표 8> 자아분화 연구모형 경로검증 결과	33
<표 9>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분해표	35
<표 10> 자아탄력성 매개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37
<표 11> 자아탄력성 경쟁모형 경로검증 결과	37
<표 12>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분해표	39

그림 목 차

<그림 1> Bartholomew와 Horowitz의 애착 모델	8
<그림 2> 연구모형1	20
<그림 3> 경쟁모형1	20
<그림 4> 연구모형2	21
<그림 5> 경쟁모형2	21
<그림 6> 부모애착, 자아분화, 성인애착의 완전매개모형	34
<그림 7>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성인애착의 부분매개모형	38

논문개요

본 연구는 부모애착 및 성인애착의 관계를 자아분화,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5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88명이었으며, 부모애착척도, 성인애착척도, 자아분화척도, 자아탄력성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상관분석과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부모애착, 자아분화, 자아탄력성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성인애착(불안, 회피)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부모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자아분화수준과 자아탄력성이 높고, 안정된 성인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분화가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가 부모애착과 성인애착 매개할 때,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자아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지고, 높은 자아분화 수준은 다시 성인애착을 잘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부모애착과 성인애착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이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경쟁모형이 근소한 차이로 더 적합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을 매개할 때, 잘 형성된 부모애착이 안정적인

성인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잘 형성된 부모애착은 자아탄력성을 높이지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인애착 형성에 간접적으로도 기여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부모애착, 자아분화,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매개효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느 집단이나 유독 타인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슬기롭게 대인관계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김광은(2004)은 이처럼 부모, 친구, 연인, 부부, 동료 등 성인기에 맺을 수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홀로 설 수 있으면서도 필요시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였다.

심리학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주요문제로 폭넓게 다루어진 연구주제(박영호, 2006)이고, 한국 사회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중요성과 대인관계능력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한 개인에게 있어서 부모-자녀관계는 이후의 삶을 이해하거나 대인관계능력을 예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이 밝혀졌다(이운기, 2006). 대인관계능력은 초기 안정적인 애착 과정을 통해 부모-자녀관계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연구(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를 비롯하여, 대인관계능력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숙, 정미자, 1995; 천영미, 우성범, 김한주, 강충명, 양은주, 2009)과 자아 분화(남상철, 유영달, 2007; 박수영, 이재연, 2005; 배미예, 이은희, 2009), 사회적 지지(김선하, 김춘경, 2010; 신노라, 안창일, 2004; 이시은, 이재창, 2008; 조영주, 2002; 한유진, 최나야, 2004) 등이 중요하다고 밝혀진 바 있다.

Burger 등(1975)은 가정을 통해 인간상호관계, 특히 초기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의 관계가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가족의 심리적 상호

작용, 즉 가족의 역동성이 심리적 건강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Kleiman, 1981; Lewis et al., 1976). 또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부모와의 초기 경험과 유대특성, 양육방식 등은 신체화(Scheidt et al., 1999; Waller et al., 2004; 정계숙, 2009), 우울(김영희, 안상미, 2008; 조하나, 백용매, 2009), 경계선 성격(김상선, 신민섭, 이훈진, 2007; 김윤숙, 2005), 사회불안(서경현, 유제민, 최신혜, 2007) 등 개인이 겪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신미(2006)는 부모와의 애착은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애착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실제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초기 애착은 중기 청소년기에는 친구관계로 전환되고 성인기에는 이성관계로 전환되기도 한다(조영주, 최해림, 2001).

그러나 발달 초기에 형성된 부모애착이 이후의 애착패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의 견해와는 달리, 부모애착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성인애착 형성을 강조하는 견해(Cook, 2000; Overbeek et al., 2003)가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장휘숙(1997)의 애착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 모두에서 부모와 따뜻한/반응적 관계유형을 갖는 사람들의 상당수(20% 정도)가 안정되지 못한 애착양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모와의 애착유형과 개인의 성인 애착양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즉 어린 날에 부모와의 관계유형이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성장하여 안정되지 못한 애착양식을 지닐 수 있고, 반대로 부모와의 관계유형이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애착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조화진, 서영석, 2010)가 발표되었다. 이처럼 국내에서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엇갈린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선상화, 2009; 조영주, 최해림, 2001; Sroufe, 1979) 매개변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심리적 독립(신미, 2006)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애착은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의해 매개되어 여대생의 성인애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 초기에도 부모와의 애착은 부모로부터 갈등적 독립을 매개로 여대생의 성인애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 영향력이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리-개별화가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조화진, 서영석, 2010)도 있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부모애착은 성인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 분리-개별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분리-개별화를 통해 안정된 성인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더라도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가 안정된 성인애착의 전제조건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미루어보아, 부모애착은 성인애착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제3의 매개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을 매개 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 변인으로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을 들 수 있다.

Bowen(1976)에 의하면 자아분화란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로, 이는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및 결속 관계를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뜻하는 심리적 독립(Josselson, 1988), 그리고 자녀가 부모와 지원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특성을 표현하고 고유한 관점을 주장할 때 이루어지는 상태인 분리-개별화(Grotevant, Cooper, 1986)와 유사한 관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아분화와 유사한 개념인 심리적 독립

과 분리-개별화가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의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지지해 줄 수 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들 수 있는데 자아탄력성은 애착과 관련되어 연구되는 심리적 변인 중의 하나이다.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은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기능하게 만드는 개인의 성격 자원으로, 부모와의 안정애착을 비롯한 다른 여러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가운데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되면, 개인은 심리적으로 잘 기능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성인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다(허정선, 현명호, 2005). 애착을 잘 형성한 아동이나 성인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허정선, 현명호, 2005, 재인용), 청소년들의 부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아탄력성은 성인애착과 유사한 개념인 또래애착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김현순 2005; 홍미란, 2010).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애착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애착, 성인애착, 자아탄력성 각각의 상관을 본 것에 그쳤으며 이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연결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변인으로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을 가정하였는데 아직까지 이 두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변인이 서로 독립적일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연구모형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각각 매개효과를 지닐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대로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된

다면,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뿐 아니라 불안정한 성인애착의 발생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이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애착

1) 애착이론

애착(attachment)이란 Bowlby(1973)가 유아와 어머니의 유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애착은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Bowlby, 1958;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로 정의할 수 있으며, 애착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은 Bowlby(1969, 1973, 1980)의 애착이론에 근거한다. 특정 인물에게 애착 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세상을 탐색하는 안전기지(secure base)로 그 인물을 이용하는데, 애착은 근본적으로 선택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극히 소수의 제한된 대상에서만 형성된다(박은영, 2002, 재인용).

Bowlby(1958)가 제시한 행동체계로서의 애착 개념은 Ainsworth(1989)에 이르러 경험적으로 실증된 후 많은 연구들에 의해 정교화 되는 과정을 거처왔다. 애착이론의 기본을 이루는 Bowlby의 이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insworth(1989)는 영아에 대한 애착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는 관찰연구를 통해 영아의 애착유형에 개인차가 존재하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민감성과 반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세 가지의 애착유형을 확인하였다. 안정된 애착으로 분류된 영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주위환경을 열심히 탐색하였고, 어머니와 분리될 때 잘 울지 않으며 재결합 시 되돌아온 어머니를 반가워하고 분리되기 이전의 탐색 행동으로 쉽게 되돌아갔다. 이에 반해 불안-양가적(anxious-ambivalent)애착

으로 분류된 영아들은 어머니와 분리될 때 심하게 울고, 어머니가 되돌아왔을 때에는 화를 내고 발로 차거나 때리기까지 하는 양가감정을 보였다. 그리고 회피적(avoidant)애착으로 분류된 영아들은 어머니를 다시 만나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아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머니의 아기들은 안정되게 애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민감하지 못한 어머니의 아기들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장휘숙, 1998).

이처럼 애착유형은 전통적으로 안정, 양가, 회피의 세 가지로 분류되어 왔다. 한편 Hazan과 Shaver(1987)는 애착과정을 이성에 대한 낭만적 사랑으로 규정하고, 유아에게 사용되어졌던 애착의 세 가지 범주를 성인의 관계 영역에 적용하였다. 즉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패턴이 실행 모델의 형태로 지속되고 그것이 이성과의 관계형성 시 그대로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타인과 비교적 쉽게 사귄 수 있고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타인이 자신에게 의존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반면, 타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회피적(avoidant)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어려우며, 오히려 타인과 가까워지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타인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할까봐 걱정한다. 한편, 불안-양가적(anxious-ambivalent)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타인과 지나치게 많이 가까워지기를 원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타인들이 자신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을 보살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장휘숙, 1997).

또 다른 애착유형의 분류로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 모델이 있다. 성인애착유형에 근거한 이전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애착패턴의 지속성보다는 어린 시절의 애착관계 경험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을 총괄하는 내적 표상으로서 작동한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정신적 표상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두 개의 축으로 나누

어 각각에 대해 어떠한 표상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 애착유형이 나누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 모델은 사랑과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신뢰롭고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로 타인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작동 모델로 구분된다. 이와 더불어 대인관계에서의 의존과 회피의 높고 낮음에 따라 애착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 모델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이 모델에 따르면 안정된(secure) 사람은 영아와 성인 연구에서 확인된 안정된 사람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이들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며 타인을 접근가능하고 반응적이라고 기대한다. 몰두된(preoccupied) 유형은 영아 연구의 양가적 양식과 일치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세 번째인 거부적인(dismissing) 유형은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한다. 마지막으로 두려운(fearful) 유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가치감과 기대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김광은, 2004 재인용).

<그림 1>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애착 모델

		자기 모델 (의존)	
		긍정 (낮음)	부정 (높음)
타인 모델 (회피)	긍정 (낮음)	유형:안전한 (친밀감과 자율과 더불어 편안한)	유형:몰두된 (관계에 몰두)
	부정 (높음)	유형:거부하는 (친밀감 거부, 의존에 맞섬)	유형:두려운 (친밀감 두렵고 사회적으로 회피)

이후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 척도를 타당화 시켰고 애착유형의 분류기준이 되는 2차원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지각이 아닌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의 애착행동전략으로 바꾸어 성인애착유형을 설명하였다. 애착회피는 친밀감과 의존성으로 인한 독립성 침해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정도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타인표상과 일치한다. 또한 애착불안은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정도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자기표상과 일치한다. 애착회피는 개인이 타인을 반응하는 존재로 지각하는 정도,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게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편안해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애착불안은 자기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지각되는 정도, 타인의 거절과 버려짐에 대해 불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모두에서 점수가 낮다는 것은 애착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계속된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성인애착이 회피와 불안의 2개의 차원 개념에 의해 더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Fraley, Waller & Brennan, 2000).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모두 낮은 사람은 안정애착으로, 하나의 차원이나 두 가지 차원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는 사람은 불안정애착으로 나누어진다. 안정적으로 애착된 사람들은 유연하고 복잡한 인지체계를 갖고 있어 대인관계 및 정서 경험에서 적응적이다(박현주, 김봉환, 2010 재인용).

2) 부모애착과 성인애착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자극을 주고받는 쌍방향 관계이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모 자녀 관계를 자녀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부모와의 애착이라고 할 수 있다. 애착은 유기체가 가

장 친근한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감정적 연대감으로서, 특히 영아와 일차적인 양육자와의 애정적 유대관계에 초점을 두고 개념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자녀가 영아기와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은 지속적으로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Bretherton(1985)과 Weiss(1982)는 청소년기에는 애착의 행동적 차원이 감소하는 반면에, 애착의 인지적-정서적 차원들은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애착관계가 지속된다는 관점은 주로 Bowlby(1988)의 내적 표상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그는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은 애착과 관련된 경험이나 사고, 감정을 어떻게 조직하고 접근하는가에 대한 일련의 규칙체계로서, 일단 발달된 이러한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은 일생을 통해 지속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정애착 유아는 발달적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 반면, 불안정 애착 유아는 후기 아동기에서 의존심의 증가 및 낮은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과제해결에 어려움을 보인다(Sroufe, et al., 1993)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친밀한 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형제 또는 자매나 다른 혈육과의 연대감을 보여주며 성인기 애착 대상과의 만남에 영향을 미치는데(Waters, et al., 2000),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이 이성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고(Hazan & Shaver, 1987; Kobak & Sceery, 1988), 아동의 어릴 적 부모에 대한 애정관계가 성인기 애정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Collins & Read, 1990). 이렇듯 청소년기 이후 부모와의 애착이 또래 애착(friend attachment)으로 전환되어 평생 지속되거나 성인기에 이르러 이성애착(romantic attachment)으로 전환되기도 한다(Hazan & Shaver, 1987; 신미, 2006 재인용).

이처럼 애착관계가 전 생애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애착대상에의 접근 행동은 변화한다. 애착대상에의 접근 행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강도와

빈도에 있어 약해지지만 전화나 편지 등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애착대상과의 안정감을 유지한다(김지연, 1995). 즉 청소년기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에게 갖는 안정감은 부모가 곁에 있다는 물리적인 존재보다는 필요시에 언제나 자기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전통적인 애착이론(Ainsworth et al., 1978; Bowlby, 1988)에서는 발달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 유형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보았고, 선행 연구들(신미, 2006; 장휘숙, 2002; 조영주, 최해림, 2001; Miri et al., 2004)도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직접적인 인과적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낯선 상황 절차를 통해 애착 유형이 분류되었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중단연구(Hamilton, 1995)에서도 대상자들이 17세가 되었을 때,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해 애착 유형을 분류했는데 77%가 영아기 때의 애착 유형과 일치율을 보였다. 동일한 중단 연구를 미네소타 집단에서도 한 결과 대상자의 70%의 일치하였음을 보고하였다(Waters, Merrick, Albersheim, & Treboux, 1995).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발달 초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이 그 이후시기까지 지속되지 않고 대상에 따라 다른 애착유형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내적작동모델이 더 복잡해진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조화진, 서영석, 2010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내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애착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 관계의 상호작용 유형과 관계의 질에 따라 한 개인의 애착패턴이 대상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Cook, 2000), 국내에서는 부모애착유형과 성인애착유형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장휘숙의 연구(1997)와 부모애착은 성인애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애착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제외한 매개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조화진과 서영석(2010)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부모애착은 성인애착과 직접적인 인과적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들이 있고, 이와는 다르게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으므로,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부모애착, 자아분화와 성인애착의 관계

1) 자아분화의 개념

자아는 가족 내에서 중요한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자아의 기본 구조는 어린 시절에 완성되며 부모자녀관계는 자아의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형성. 안정된 자아가 형성되면 점차 아동은 어머니와의 정서적 융합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이를 Bowen(1976)은 자아분화라고 규정하였다. 분화라는 개념은 감정을 지적체제에 의해서 얼마나 잘 통제하고 지배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가족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신을 독립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윤정연, 2001).

Bowen(1976)에 의하면 자아분화란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를 말한다. 즉 자아분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자아분화는 개인 내적 측면에서 지적기능(intellectual function)이 정서적 기능(emotional function)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말한다. 정서적 기능이란 인간 내부의 자동적 기능을 관장하는 본능적인 경향(Bowen, 1978)으로,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정서적 과정에서 지적과정이 분화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환경을 지각하지 못하며, 자동적 정서체제 즉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Bowen,

1976; Waanders, 1987). 따라서 자아분화가 되지 못한 사람은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부적응에 빠지게 되고 융통성이 부족하며 역기능적인 행동이나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본다(Hollander, 1983).

또 하나는 대인 관계적 측면으로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진아(solid self: 자기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확신 및 생활 원리로 구성된 장으로서, 주위의 정서적인 힘 또는 압력에 굴하지 않는 자주적·독립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자아)가 발달되지 못하고, 대신 가아(pseudo self: 타인과의 관계에서 획득된 이질적인 사실, 신념 및 원리로 구성되어 타인의 정서적 압력에 쉽게 변하는 자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일관된 신념에 따른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견해에 쉽게 동조하며, 타인으로부터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거나, 혹은 공격이나 비난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삶을 산다고 보았다(Bowen, 1976, 1982).

그러나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타인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잘 정의된 자아를 유지하고 있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산다(Bowen, 1982; Hansen & L'Abate, 1982; 제석봉, 1989에서 재인용). 즉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의 정서적 성숙과 관계적 측면에서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자아분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Bowen의 이론은 인간이 건강하고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적 체계와 감정체계를 충분히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다. 즉,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 자신을 환경 속에서 지배를 받는 종속된 존재를 독립된 존재로 바꾸는 지적체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생명체들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말하며 다른 개체들과 연합

하고 관련을 맺고자 하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감정체계라고 보면서, 감정이 없이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존하기 어렵고 도태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김용태, 2001; Kerr & Bowen, 1988; Papero, 1990). 따라서 자아분화의 목표는 지적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동적 정서반응을 상실하거나 반대로 감정체계를 강조하여 지적체계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인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볼 수 있다(Friedman, 1991; 최인재, 2004에서 재인용).

2) 부모애착과 자아분화

Bowen(1978)은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특징을 설명하면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의존적인 생활을 하여 부모와 신체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 애착을 추구하려 한다고 하였으며, Parker(1979)는 적절한 유대를 보이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성숙되고 안정성이 있으며 긍정적인 성격측면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이에 제석봉(1989)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역기능적 행동이나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가족투사가 심하고,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하며, 가족 퇴행이 심할 때 역기능 행동이 유발된다고 하여 Bowen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백양희와 최외선(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적절한 유대관계일 때 자아분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영호(2006)는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아분화를 통해 대인관계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이는 부모와의 유대감을 통한 개인의 독립성, 개별화를 강조하는 양육방식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서구의 부모-자녀관과 부합되는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갑숙, 전영숙, 이철우(2009)의 연구에서도 부

모애착과 자아분화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3) 자아분화와 성인애착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Bowen은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부타나는 행동이나 증상들은 모두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아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한다(Bowen, 1982). 자아분화와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지만 신미(2006)는 여대생들의 부모애착이 부모로부터의 심인 독립, 특히 갈등 독립에 의해 매개되어 성인애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냈고, 역시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심인 독립, 성인애착과의 관계성나는 피 본 선상화(2009)도 남녀 모두 부모로부터의 심인 독립이 높을수록 이성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쉽게 친해지며 편안함을 느끼고, 쉽게 의존하고 기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화신과 서영석(20성상화의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분리-개별화를 매개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부모애착, 자아탄력성과 성인애착의 관계

1) 자아탄력성의 개념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좌절을 느끼지 않으며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일컫는다. Rutter(1985)는 환경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놀랍게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에 저항적인 어린이들을 발견하고 탄력성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아탄력성은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Block & Block, 1980; 허정선, 현명호, 2005 재인용). Block(1982)은 자아탄력성을 하나의 성격유형으로 정의하여,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불안에 민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중간 수준의 자아-통제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체계의 평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 맥락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의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서지영(2002)은 자아탄력성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사회적 유능감으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공감해주며, 자신을 둘러싼 문제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자신에 대한 높은 지각력인데 이는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목표의식을 갖고 미래에 대해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세 번째 특성에 속한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인 특성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긍정적 정서를 보이고 우울에도 취약하지 않으며(고은정, 1997), 낙천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Klohn, 1994). 또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Rutter, 1987; Klohn, 1996), 자신의 경험에 개방적이었다(구형모, 2000). 자아탄력성이 높은 취학 전 아동들이 효율적인 기능을 하며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하다(Arend et al., 1979)는 결과도 밝혀졌다.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많은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고, 일단 그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면 예기 불안 지각우울을 경험한다(Tellegen, 1985). 또한 정서가 불안정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개방이 부족하다(Block & Block, 1980). 게다가 자아존중감이 낮고 사회적 철수를 보이기도 하였다(고민숙, 2002 재인용).

2)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인생 초기에 형성된 안정성(security)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발달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지니게 한다(Kobak & Sceery, 1988). 내적 자원을 지닌 개인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기여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도 안정되고 편안한 가정환경과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이 자아탄력성과 관련 있다는 결과들이 지지되었다(Kerns & Steven, 1996; Kobak & Sceery, 1988; Sroufe, Carlson & Shulman, 1993). 청소년기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들은 청소년기 발달과 적응의 실마리를 애착관계에서 얻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백지숙, 2000).

또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애착과 탄력성 연구에서 안정애착 유아는 발달적 과제를 더 적응적으로 해결해 나간 반면, 불안정 애착유아는 후기 아동기에 의존성이 증가했고,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낮으며 과제해결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erns & Steven, 1996; Kobak & Sceery, 1988; Shaver & Brennan, 1992; 장휘숙, 2001, 허정선, 현명호, 2005, 재인용).

최근 김현순(2005)과 홍미란(2010)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및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본 결과,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자아탄력성이 낮은 부모들은 자녀와의 스트레스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자녀에게 부적절한 정서를 표출하게 된다는 연구가 있다(Hooley & Hiller, 2000; 허정선, 현명호, 2005, 재인용). 이를 통해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적 대처전략이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자아탄력성과 성인애착

30년 종단연구를 수행한 Werner와 Smith(1992)의 연구에서 탄력적 아동들은 좋은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탄력적 집단을 추출하여 연구한 Herman-Stahl과 Petersen(1996)은 탄력적 청소년들이 부모 및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Dumont와 Provost(1999)도 탄력적 청소년들은 높은 자기 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문제집중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며 부모 및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Block과 Kremen(1996)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남성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동정적이고 타인을 돌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대조적으로 낮은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은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대처방식이 만성적으로 갈등적이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갖는 여성들 역시 대인관계가 능숙하였다(장휘숙, 2001 재인용).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애리, 유순화(2008)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문제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는 적어지는 것이다. 이는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이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킨다는 Garmezy(198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Block과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불분명한 장면이나 대인관계에서 더 자신감 있고 유능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Fernandez-Berrocal, Alcaide, Extremera, & Pizarro, 2006)이기에 대인관계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Klohnen(1996)은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과 능숙한 표현기술로 인해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한다고 하였다(정애리, 유순화, 2008, 재인용).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김현순, 2005; 홍미란, 2010), 고민숙(2002)이 자아탄력성과 성인 애착의 세 유형에 따라 여섯 집단의 평균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고 안정 애착인 집단은 불안 양가 애착인 집단에 비해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을 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안정 애착 유형과 상관이 높으며,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불안정 애착과 상관이 높은 연구 결과(고은정, 1997)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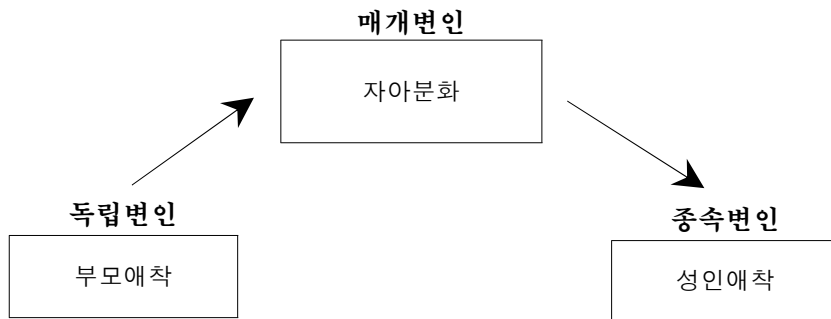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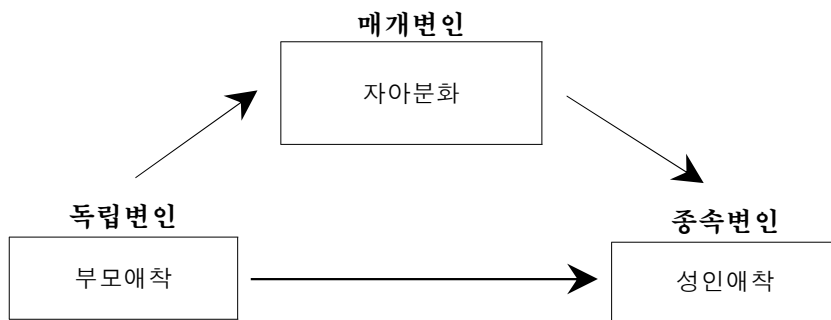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을 독립변인으로, 성인애착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각각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여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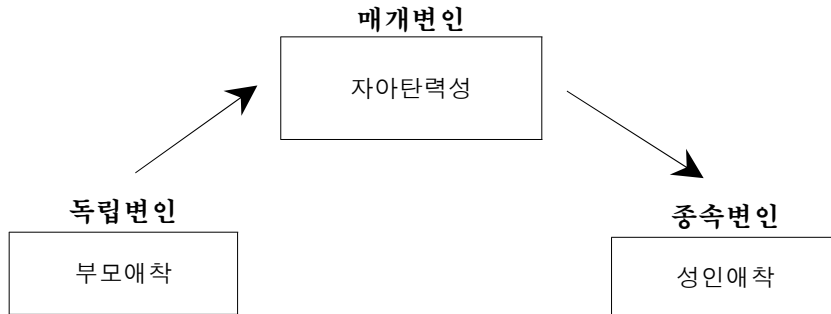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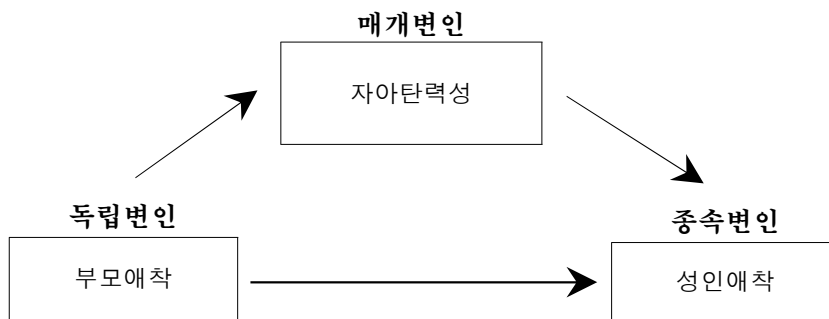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1



<그림 4> 연구모형 2



<그림 5> 경쟁모형 2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애착, 자아분화, 자아탄력성, 그리고 성인애착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를 자아분화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를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가?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총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문항이 누락된 경우와 무성의하게 답변한 피험자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외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성 관계 경험이 없는 피험자의 자료는 배제하여 최종 388명이 피험자로 선정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388)	백분율(%)
성 별	남	178	45.9
	여	210	54.1
학 년	1학년	132	34.2
	2학년	122	31.6
	3학년	74	18.9
	4학년	60	15.3

2. 측정도구

1) 부모애착 척도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청소년들의 부, 모, 또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것을 옥정(1997)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PPA-R에서 또래에 대한 애착 안정성을 제외하고 부, 모 애착안정성만을 측정하였으며 각각 25문항이다. 각 하위차원 중,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욕구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호신뢰차원은 10문항(예: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 부모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소통과 공감에 대해 측정하는 의사소통차원은 9문항(예: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분노와 정서적 거리를 측정하는 소외차원(예: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에서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서 부정적인 문항(예: '부모님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에서는 역채점을 한다. 이 척도에서는 총점만을 이용하였고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와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수민(2010)의 연구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 어머니에 대한 애착척도의 Cronbach's α 계수 .90이었다. 이전에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수준을 살펴 본 신지은(2009)의 연구에서 아버지 애착척도 .92, 어머니 애착척도 .90 이었던 결과와 비슷하다. 또한 척도를 처음 개발한 Armsden과 Greenberg(1989)의 연구에 나타난 부모 애착척도 내적 합치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89, .87이

있으며, IPPA-R을 작성한 옥정(199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척도 내적합치도가 각각 .93,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Cronbach's α 계수 .94, .93이었고, 각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부모애착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	신뢰도	
			부	모
신뢰감	10	1, 2, *3, 4, *9, 12, 13, 20, 21, 22		
의사소통	9	5, *6, 7, *14, 15, 16, 19, 24, 25	.94	.93
소외감	6	*8, *10, *11, *17, *18, *23		

* 역채점 문항

2) 자아분화 척도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owen의 자아분화 수준척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제석봉(1989)의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분화 수준을 다섯 가지 하위 척도로 나뉘고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다른 문항과의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은 자아통합 요인을 제외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의 하위요인(인지·정서 기능,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이 중 신뢰도가 낮은 20번과 36번을 제외하여 총 28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4단계 평정법으로 평가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그러한 편이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

이 부여되고 각 하위요인에서 부정적 문항들은 역채점하기 때문에 각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된 것을 의미한다(최인재, 2004).

모든 사람의 자아분화 수준은 0에서 100까지의 수적인 연속선의 한 지점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정상이라는 개념은 없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 자아융합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주위 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에 민감하고 의존적이다. 긴장,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을 못하며 타인에게 심한 정서적 애착을 보이고, 그런 관계가 깨어질 때 불안해한다. 그러므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타인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확고한 자아 정체감을 유지해 나간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이러한 신념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목적 지향적 삶을 산다(신영규, 1994).

제석봉(1989)이 도구 개발 시 부산시에 소재한 남녀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1개교씩을 선정하여 총 371명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자아분화척도의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자아분화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	신뢰도
인지·정서 기능	7	*1, *2, 3, *4, *5, *6, *7	.70
가족투사	6	*14, *15, *16, *17, *18, *19	.80
정서적 단절	5	*21, *22, *23, *24, *25	.79
가족퇴행	10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89

* 역채점 문항

3)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척도는 Block(1961, 1978)에 의해 개념화되고 고안된 척도로서, Klohenn(1966)이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에서 Q-sort(CAQ)의 자아탄력성 문항과 .20 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48개의 문항을 뽑아 CPI의 다른 척도와 상관이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개의 항목으로 추려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자신감 9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낙관적 태도 10문항, 분노조절 2문항 등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진술문으로 되어 있는 문항은 역점수로 환원하여 계산하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현진(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그의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1이었고,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자아탄력성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	신뢰도
자신감	9	*7, *10, *11, *12, *13, *22, 23, *24, *26	.84
대인관계 효율성	8	*3, *4, *5, *8, *9, *14, *15, *21	.84
낙관적 태도	10	*1, *2, *6, 16, *17, 18, *20, *25, 28, *29	.84
분노 조절	2	*19, *27	.57

* 역채점 문항

4) 성인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발한 수정된 친밀관계경험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ECR-R)를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ECR-R은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 즉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회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된 애착패턴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애착불안은 거절에 대한 공포와 유기에 대한 걱정을 측정하고, 애착회피는 친밀함에 대한 회피와 타인과 가까워지거나 의존함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측정한다. Brennan 등(1998)의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차원의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91와 .94로 나타났고,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각각 .89와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2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성인애착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	신뢰도
불안	17	2, 6, *8, 10, 12, 13, 14, 15, 17, 20, 22, *23, 24, 25, 26, 31, 36	.91
회피	18	1, *3, 4, *5, *7, *9, 11, 16, *18, 19, *27, *28, *29, *30, *32, *33, *34, 35	.92

* 역채점 문항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신뢰도와 상관관계, 기술적 통계를 위해서 SPSS/WIN 17.0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AMOS 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세운 연구모형 1과 2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검증하였다. 우선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한 다음, 경쟁 모형과 비교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고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인 부모애착, 자아분화,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부모애착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전체 자아분화 수준을 의미하는 자아분화의 합과 유의미한 정적상관($r=.66$, $r=.65$)을 나타냈고, 자아탄력성의 합과도 유의미한 정적상관($r=.38$, $r=.35$)을 나타냈다.

둘째, 부애착과 모애착은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부적상관($r=-.27$, $r=-.31$)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성인애착도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아분화와 성인애착(불안, 회피)은 부적상관($r=-.28$)을 나타내어 자아분화가 잘 되어있을수록 성인애착이 안정적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아분화는 성인애착의 하위요인인 회피($r=-.14$)보다 불안($r=-.31$)과 더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넷째, 자아탄력성은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부적상관($r=-.52$)을 나타내어 자아분화와 마찬가지로 자아탄력성도 성인애착의 하위요인인 회피($r=-.37$)보다 불안($r=-.46$)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 부모애착, 자아분화, 성인애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고,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구자가 가정한 매개모형1과 2를 검증하기에 자료가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6>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N=388)

	1	1-1	1-2	2	2-1	2-2	2-3	2-4	3	3-1	3-2	3-3	3-4	4	4-1	4-2
1	1															
1-1	.953**	1														
1-2	.938**	.790**	1													
2	.694**	.660**	.652**	1												
2-1	.321**	.304**	.304**	.599**	1											
2-2	.229**	.198**	.237**	.585**	.366**	1										
2-3	.644**	.611**	.608**	.709**	.271**	.258**	1									
2-4	.719**	.713**	.643**	.778**	.274**	.164**	.556**	1								
3	.384**	.375**	.350**	.486**	.481**	.299**	.259**	.317**	1							
3-1	.341**	.340**	.304**	.468**	.459**	.306**	.206**	.299**	.908**	1						
3-2	.243**	.215**	.248**	.308**	.271**	.166**	.156**	.213**	.838**	.682**	1					
3-3	.397**	.403**	.345**	.433**	.408**	.269**	.286**	.281**	.860**	.715**	.535**	1				
3-4	.231**	.231**	.206**	.415**	.605**	.264**	.198**	.260**	.471**	.356**	.296**	.334**	1			
4	-.307**	-.274**	-.310**	-.283**	-.266**	-.074	-.170**	-.296	-.522**	-.455**	-.488**	-.435**	-.186**	1		
4-1	-.306**	-.258**	-.325**	-.313**	-.300**	-.097	-.202**	-.283**	-.461**	-.442**	-.404**	-.361**	-.205**	.809**	1	
4-2	-.185**	-.180**	-.170**	-.138**	-.120*	-.023	-.071	-.194**	-.370**	-.283**	-.371**	-.333**	-.091**	.796**	.291**	1
M	3.63	3.52	3.74	2.88	2.90	3.00	2.88	3.06	3.46	3.47	3.24	3.66	3.26	2.49	2.62	2.37
SD	.60	.68	.60	.32	.46	.58	.64	.57	.60	.68	.80	.66	.98	.52	.66	.63

1. 부모애착 1-1. 부애착 1-2. 모애착 2. 자아분화 2-1. 인지·정서 기능 2-2. 가족투사 2-3. 정서적 단절 2-4. 가족퇴행
 3. 자아탄력성 3-1. 자신감 3-2. 대인관계 효율성 3-3. 낙관적 태도 3-4. 분노조절 4. 성인애착 4-1. 불안 4-2. 회피
 * $p < .05$, ** $p < .01$

2. 구조방정식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을 각각의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2개의 구조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절차는 크게 1단계 분석법과 2단계 분석법,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2단계 분석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2단계 분석법(Two-step Approach)은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측정모형의 오류를 수정한 후 경로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김대업,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리하여 설정한 다음 설정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추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에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고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ex)와 CR(critical ratio)값을 고려하여 최종 모형을 확정하는 단일모형 평가방법과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모형을 제시하고 서로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가장 해석하기 용이하고 자료와 잘 맞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경쟁모형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에 대한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쟁모형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각각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으로 하고, 모형 간 비교를 통해 매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혹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χ^2 검증을 할 수 있지만, χ^2 은 표본 크기에 비교적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문제점이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홍세희(2000)가 제안한 적합도 지수인 GFI(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GFI, CFI,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5~.08사이의 값은 괜찮은 적합도, .08~.10 사이 일 때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1) 자아분화 매개모형

(1)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 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먼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리하여 설정한 다음 설정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chi^2(N=388)=80.90(df=17)$, GFI=.951, TLI=.903, CFI=.941, RMSEA=.099를 비롯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인들은 모두 이론변인들을 잘 구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연구모형인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이전 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애착이 자아분화의 매개를 통해 성인애착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81.2(18)$, $p>.000$, GFI=.951, TLI=.910, CFI=.942, RMSEA=.095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적의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을 선별하고자 앞서 제시한 경쟁모형을 검증하여 비교한 적합도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우선, 완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GFI, CFI, TLI가 .90 이상이고, RMSEA도 .08~.1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

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적합도 지수상의 차이가 유의하게 크지 않았다. 이에 서로 내포(nested)관계에 있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차이 규명을 위해 χ^2 값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값 역시 0.3으로 유의하지 않고 연구모형의 자유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결과를 확인한 바, 경쟁모형의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직접효과 ($p=.6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자아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자아분화 매개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모형	χ^2	df	G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완전매개모형)	81.2	18	.951	.910	.942	.095
경쟁모형 (부분매개모형)	80.9	17	.951	.903	.941	.099

(3) 모형에 나타난 경로계수와 매개효과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완전매개 모형인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검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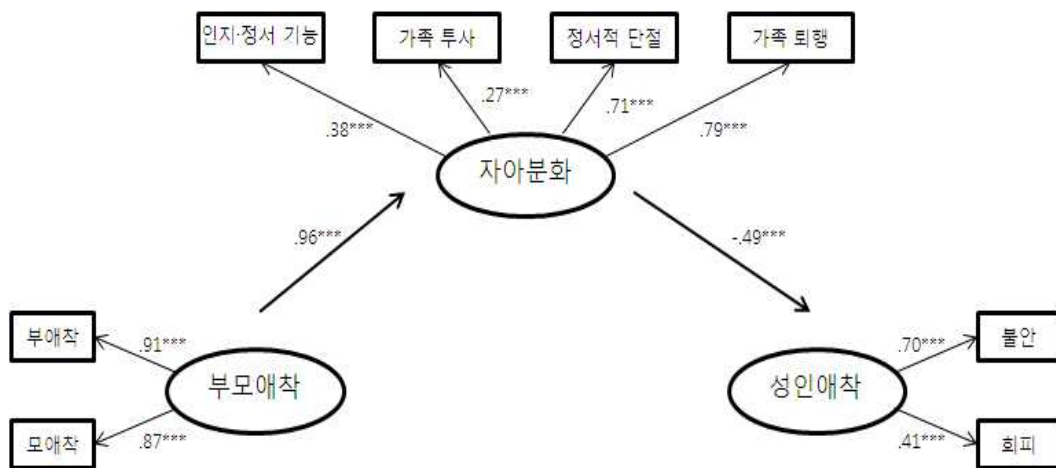
<표 8> 자아분화 연구모형 경로검증 결과

변인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부모애착 → 자아분화	.32	.045	7.195	***	.96
자아분화 → 성인애착	-1.30	.260	-5.004	***	-.49

*** $p < .001$

연구모형의 경로검증을 살펴보면, 자아분화가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구모형 내에서 자아분화가 매개역할을 하게 되면,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줄어들고, 간접적인 효과만 유의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애착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더 유의해지게 된다. 따라서 경쟁모형방법을 통해 더 적합하다고 채택된 완전매개모형(연구모형)을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이는 부모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높은 자아분화를 이루게 되며, 높은 자아분화수준은 안정적인 성인애착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그림 6> 부모애착, 자아분화, 성인애착의 완전매개모형(연구모형)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매개모형에서의 Z값이 -4.01 ($p < .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자아분화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변인들 간의 직접, 간접 효과

매개모형에서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을 설명하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예측변인에서 결과변인으로 바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결과변인으로 가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이를 매개효과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표 9>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분해표

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모애착 → 자아분화	.958	.958	-
부모애착 → 성인애착	-.466	-	-.419
자아분화 → 성인애착	-.480	-.486	-

그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958로, 자아분화에 부모애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분화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466으로, 자아분화 역시 성인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애착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애착이 매개변인인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종속변인인 성인애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아탄력성 매개모형

(1)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 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리하여 설정한 다음, 설정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측정모형의 $\chi^2(N=388)=64.25(df=17)$, GFI=.961, TLI=.936, CFI=.961, RMSEA=.085를 비롯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인들은 모두 이론변인들을 잘 구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연구모형인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이전 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애착이 자아분화의 매개를 통해 성인애착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70.09(18)$, $p>.000$, GFI=.958, TLI=.933, CFI=.957, RMSEA=.086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적의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을 선별하고자 앞서 제시한 경쟁모형을 검증하여 비교한 적합도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GFI, CFI, TLI가 .90 이상이고, RMSEA도 .08~.1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위해 χ^2 값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값은 5.8($df=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χ^2

값이 더 작은 경쟁모형(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할 때,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아탄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자아탄력성 매개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모형	χ^2	df	G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완전매개모형)	70.0	18	.958	.933	.957	.086
경쟁모형 (부분매개모형)	64.2	17	.961	.936	.961	.085

(3) 모형에 나타난 경로계수와 매개효과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이 비교적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검증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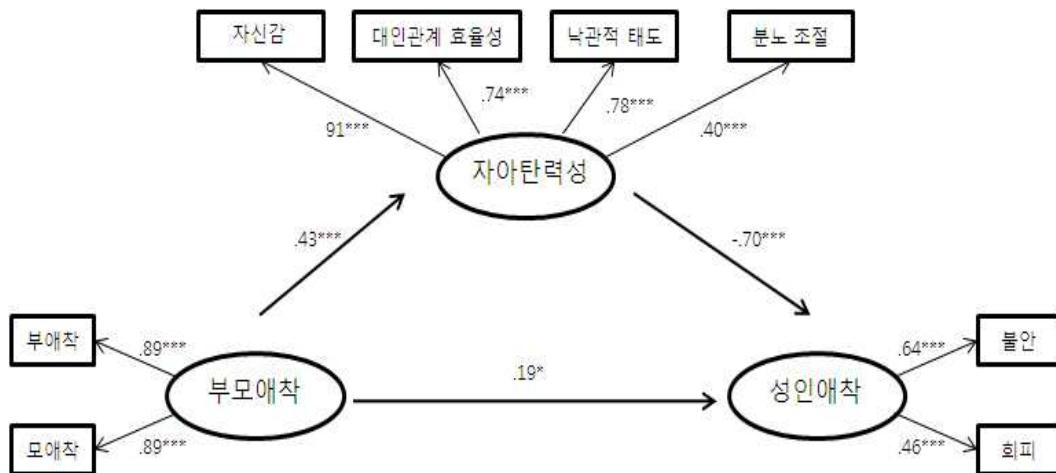
<표 11> 자아탄력성 경쟁모형 경로검증 결과

변인	비표준 화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부모애착 → 자아탄력성	.47	.067	7.450	***	.43
자아탄력성 → 성인애착	-.48	.057	-8.363	***	-.67
부모애착 → 성인애착	-.16	.060	-2.562	*	-.19

* $p < .05$ *** $p < .001$

연구모형의 경로검증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구모형 내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할 때에,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기도 하고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모형방법을 통해 더 적합하다고 채택된 부분매개모형(경쟁모형)을 <그림 7>에 제시하였다. 이는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적관계에 있으며,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매개모형에서의 Z값이 -4.09 ($p < .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자아분화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성인애착의 부분매개모형(경쟁모형)



(4) 변인들 간의 직접, 간접 효과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매개모형에서 예언변인이 결과변인을 설명하는 효과

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예언변인에서 결과변인으로 바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예언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결과변인으로 가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이를 매개효과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에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었다.

<표 12>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분해표

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모애착 → 자아탄력성	.426	.426	-
부모애착 → 성인애착	-.490	-.194	-.296
자아탄력성 → 성인애착	-.695	-.695	-

그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에서 자아탄력성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426으로, 자아탄력성이 부모애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경로의 전체효과는 -.695로, 자아탄력성 역시 성인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에 검증하였던 자아분화의 매개모형에서와는 달리 자아탄력성의 매개모형에서는 성인애착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접효과가 -.194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하지만,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이라는 매개변인을 거쳐서 주는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검증 이전에 독립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애착과 성인애착(불안, 회피)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 쓰인 성인애착 척도는 불안과 회피라는 부적인 개념을 측정하였으므로, 이것은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됐을수록 성인애착도 안정적으로 잘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발달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 유형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보았던 Ainsworth(1978)와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이 일생을 통해 지속된다고 주장한 Bowlby(1988)의 전통적인 애착이론을 뒷받침한다. 자녀가 영아기 혹은 아동기에 형성한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다른 애착 대상에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여전히 분분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부모애착과 자아분화가 정적상관을 보인 것은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아 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정서적인 성숙과 가족과의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백양희와 최외선(1997), 그리고 박영호(2006)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도 정적인 상관을 보여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되면 자아탄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전의 연구 결과(Kerns &

Steven, 1996; Kobak & Sceery, 1988; Shaver & Brennan, 1992; 장휘숙, 2001, 허정선, 현명호, 2005, 재인용)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 모두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아분화와 성인애착에 관한 선행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지만, 자아분화와 성인애착(불안, 회피)의 부적 상관은 자아분화와 유사한 개념인 심리적 독립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신미(2006), 선상화(2009)의 연구 결과와, 분리-개별화가 성인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조화진, 서영석(201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성인애착(불안, 회피)의 부적상관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안정 애착 유형과 상관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불안정 애착과 상관이 높다는 고은정(1997)의 연구와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는 이전의 선행 연구 결과(Block & Kremen, 1996; Dumont & Provost, 1999; Herman-Stahl & Petersen, 1996; Werner & Smith, 1992)와 일치한다.

둘째,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분화가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연구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부모애착에서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였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었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가 이성애착관계에서 불안과 회피 수준을 낮춰주어 성인애착을 잘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된 대학생은 자아가 성숙되어 있고, 가족과 분화가 잘 되어 있어서 성인기 이성 관계에서 애착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애착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적합하지 않고, 다른 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

(신미, 2006; 조화진, 서영석, 2010)를 뒷받침 해 준다.

셋째,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의 매개모형에서는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매개모형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자아분화의 완전매개모형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의 매개모형을 살펴보면 부모애착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그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고, 부모애착에서 자아탄력성, 그리고 자아탄력성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의 다양한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자녀들은 적응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많은 연구 결과들(박지아, 유성경, 2003),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능숙하다고 한 선행 연구 결과들(장휘숙, 2001; 정애리, 유순화, 2008; Block & Kremen, 1996; Garmezy, 1983)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연구 결과, 자아분화를 매개로 했을 때 부모애착은 성인애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했을 때 간접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나타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 해 보면, 부모와의 애착은 자아분화에 의해 매개되어 대학생의 성인애착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부모와의 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의해 매개되었을 때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각각 자아분화를 매개로 했을 때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했을 때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모애착에서 자아분화로 가는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부모애착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부모애착에

서 자아분화로 가는 설명력이 크기 때문에 부모애착의 효과가 분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을 비롯한 다양한 애착 관련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그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무엇이 그 둘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를 의미하는 심리적 기제인 자아분화와 스트레스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자아탄력성을 각각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애착과 성인애착 간의 관계성을 보다 정교화 시킴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유의미한 상관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으로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상담이나 임상장면에서 안정된 성인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겠다. 또한 개인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이 정서적 성숙해 지고, 가족과의 적절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성인애착을 잘 형성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부모애착이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상담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안정적인 성인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상담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애착 뿐 아니라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에도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현재 성인애착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을 도

와주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증진시켜 줄 필요가 있으나, 이는 이미 내담자의 과거에 형성된 것이고 상담자가 현재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므로 이보다는 내담자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줌으로써 안정된 성인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로 하여금 부모와 자신간의 관계를 자각한 상태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분화되고,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에서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안정적인 성인애착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아동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재탐색하고, 자각하여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우선 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 측정방법과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자기보고형식에 의해 얻어졌기 때문에 애착을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탐색하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면접연구나 질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에 형성되는 애착 중에 이성 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성 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착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착을 함께 측정하고 그에 대한 비교를 통해 성인기의 애착이 대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넷째, 부모와의 애착과 성인애착 간에 조절효과를 주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했을 지라도 성인애착을 잘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기제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

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였고, 각각의 변인이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관하여 검증하였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포함한 매개모형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이성 관계 기간을 따로 세분화하지 않았으나, 이성 관계의 기간에 따라 성인애착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성 관계 기간을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민숙 (2002). **자아탄력성, 의사결정 유형 및 성패귀인 유형과의 관계: 애착 유형과 생활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은정 (1997).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형모 (2000). **자아탄력 집단 성격 특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청소년의 부모 애착, 자아분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209-224. 한국가족치료학회.
- 김광웅, 김순재 (1996). **청소년의 기질 및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와의 관계**. **생활과학연구지**, 11(1).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대업 (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학현사.
- 김상선, 신민섭, 이훈진 (2007).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자기 및 타인 표상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703-715.
- 김선하, 김춘경 (2010). **대인관계 집단치료와 인지행동 집단치료가 청소년 우울 및 관련 변인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7(3), 55-86. 한국청소년학회.
- 김영희, 안상미 (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1. 한국청소년학회.

- 김용태 (2001). **가족치료 이론**. 서울: 학지사.
- 김윤숙 (2005).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한 초기 부모 애착과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 아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 (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순 (2005).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상철, 유영달 (2007).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51-75. 한국가족관계학회.
- 박수영, 이재연 (200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189-200. 한국아동학회.
- 박영호 (2006).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 부자유친성정, 애착, 우리의식, 자아분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아, 유성경 (2003).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765-778. 한국심리학회.
- 박현주, 김봉환 (2010). 상담자의 성인애착유형과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33-52. 한국심리학회.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미예, 이은희 (2009).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및 우울/불안 간의 관계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0(1), 통권 제52호, 85-1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양희, 최외선 (1997). 환경변인 및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농촌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18, 71-86. 대한가정학회.
- 백지숙 (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27-137.
- 서경현, 유제민, 최신혜 (2007).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중재효과와 행동억제체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55-272. 한국상담심리학회.
- 서지영 (2001).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Resilience)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상화 (2009). 부모애착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과의 관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8. 한국임상심리학회.
- 신미 (2006). 부와 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및 여대생의 성인애착.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애착과 대인관계 :여대생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347-363. 한국여성심리학회.
- 오영희 (1993). 계시장 발표: 대학생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연차 학술 발표 대회 논문집 1993권**. 한국심리학회.
- 유은희 (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정연 (2001).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성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 정미자 (1995). 아동의 또래 수용도 및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3**(2), 103-112.
- 이시은, 이재창 (2008).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83-101. 한국상담심리학회.
- 이운기 (2006). **자아분화와 우리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 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6**(1), 80-118.
- 장휘숙 (1998). **발달정신병리학의 이해**. 서울:학지사.
- 장휘숙 (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4**(1), 113-127. 한국발달심리학회.
- 정계숙 (2009). 정서 관련 아동 및 부모 양육 변인에 따른 초등학교 아동의 신체화 증상. **아동학회지**, **30**(4), 155-171. 한국아동학회.
- 정애리, 유순화 (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제**18**집, 139-160. 경산대학교 교육연구회.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 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주 (2002). 초기애착이 대인관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효능감을 매개로. **연세학술논집 제35집**, 187-208. 연세대학교대학원총학생회.

- 조하나, 백용매 (200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2), 통권54호, 1035-1049. 한국상담학회.
-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천영미, 우성범, 김한주, 강충명, 양은주 (2009). 아동의 대인관계 군집유형과 부모요인간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103-122.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교심리학회.
- 최인재 (2004).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유진, 최나야 (2004).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생활만족도가 대인관계 상황 귀인 양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363-384. 한국청소년학회.
- 허정선, 현명호 (2005). 가족의 애착, 귀인양식 및 자아탄력성과 표출정서(expressed emotion)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37-51. 한국임상심리학회.
- 홍미란 (2010). **부모·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insworth M. D. S. (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 M. S.(1973). Caldwell & H. N. Ricciuti(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insworth, G. C., &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c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The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4-226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5.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and 421-431; reprinted 1979, New York: Methuen; London: Tavistock.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logy*. In P. J.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ed int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urger, G. K., Armentrout J. A., & Rapfogel R. G. (1975). Recalled parental behavior and objective personality measures: A Canon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532-7752, Volume 39, Issue 5, 1975*, 514 - 522.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ok, W. L. (2000). Understanding attachment security in family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85-294.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8, No. 3*, 343-363.
- Fernandez-Berrocal, P., Alcaide, R, Extremera, N., & Pizarro, D. (2006).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4*, 16-27.
- Filsinger, S. J., & Lamke, L. K. (1983). The Lineage transmission of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75-80.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Friedman, E. (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Vol. 2). by Alan S. Gurman and David P. Kniskern. New York: Brunner/Mazel, INC.
- Garmezy, N. (1983). Stressor in childhood. In N. Garm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 Grotevant, H., & Cooper, C. (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 Perspective on individual deffernces in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nd role taking skill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9, 82-100.
- Hansen, J. C., & L'Abate, L. (1982). *Approach to family therapy*. New York: Macmillan.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erman-Stahl, M., & Petersen, A. C (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resources for depressive sytem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649-665.
- Hollander, C. E. (1983). Comparative family systems of Moreno and Bowen.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and Sociometry*, 36(1).

- Hooley, J. M., & Hiller, J. B. (2000). Expressed emotion and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40-44.
-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Lapsley, D. K., & Power, F. c. (de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New York: Spronger-Verlag.
- Kerns, K. A., & Steven,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323-342.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Kleiman, J. (1981). Optimal and normal family function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 37-46.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0(5)*, 1067-1079.
- Kobak,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for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and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47(3)*, 283-300.
- Lewis, J. M., Beavers, W., Gossett, J & Phillips, V. (1976). *No single tread: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Main, M.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attachment organization: Recent studies, changing methodologies, and the concept of conditional strategies. *Human Development*, 33, 48-61.
- Papero, D. L. (1990). *Bowen family systems theory*. Boston: Allyn and Bacon.
- Parker G. (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Scheidt, C. E., Waller, E., Schnock, C., Becker-stoll, F., Zimmermann, P., Luking, C., & Wirsching, M. (1999). Alexithymia and attachment representation in idiopathic spasmodic torticolli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7(1), 47-52.
- Shaver, P. R, & Brennan, K. A.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outcomes. outcomes. outcomes. out Bulletin*, 18, 536-545.
- Sroufe, L. A. (1979). The coherence of individu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4(10), 834-341.
- Sroufe, L. A., Carlson, E., & Schulman, S. (1993). Individuals in relationships: Develop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In D. C. Funderm R. D. Parke, C. Tomlinson-Keasey, & K. 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develoment*, 315-42, Washington, DC: APA.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er(Eds.), *Anxiety and anxiety disorders*, 681-706. Hillsdale, NJ: Erlbaum.

- Waanders, D. D. (1987) Ethical reflection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 marriage. *Journal of Pastoral Care*, 41.
- Waller, E., Scheidt, C., & Hartmann, A. (2004).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illness behavior in somatoform disorder.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3), 200-209.
- Waters, E., Weinfield, N. S., & Hamilton, C. E. (2000). The stability of attachment security from infancy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General discussion. *Child Development*, 71, 703-706.
- Weiss, R. S. (1982). Issues in the study of loneliness. In L.A. Peplau and D. Perman(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71-80)*. New york: wiley.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Ego-Resilience

Yang, Su Ji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388 University students in Metropolitan Seoul with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IPPA-R), Self-Differentiation Scale, Ego-Resilience Inventory and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ECR-R). And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17.0 and AMOS 7.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attachmen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differentiation and ego-resilience. And adult attachment(anxiety and

avoidance)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arental attachment, self-differentiation and ego-resilience.

Second, the relationship analysi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demonstrated that self-differentiation is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It means as parental attachment is secure, self-differentiation level goes up, and this affects the parental attachment to be well-formed again.

Third, ego-resilience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Specifically, parental attachment has both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on adult attachment. But indirect effect is more significant than direct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In shor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well-formed parental attachment not only affects the secure-adult attachment directly, but also the ego-resilience to elevate, so that it indirectly contributes to form secure adult-attachment agai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Parental Attachment, Self-Differentiation,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Mediation Effect

부 록

부록 1. 부모애착 척도

부록 2. 자아분화 척도

부록 3. 자아탄력성 척도

부록 4. 성인애착 척도

♣ 다음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내는 곳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부 모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	우리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	다른 분이 우리 부모였으면 좋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6	부모님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8	부모님과 함께 내 문제를 상의할 때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바보같이 생각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걸 바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0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2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부모님은 내 의견을 고려해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3	우리 부모님은 내 판단을 신뢰하십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4	우리 부모님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문제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6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7	나는 부모님에게 분노를 느낀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8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9	우리 부모님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 해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0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2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4	내 마음의 부담을 떨쳐 버리고 싶을 때 부모님께 의지할 수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5	부모님이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 경우,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 1-13까지의 문항은 최근 2년간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해당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 표 해 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러한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	1	2	3	4
2	나는 말부터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 말을 후회하는 일이 많다.	1	2	3	4
3	나는 비교적 내 감정을 잘 통제해 나가는 편이다.	1	2	3	4
4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욕을 하고 무엇이든 부수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다.	1	2	3	4
6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 잘 말려드는 편이다.	1	2	3	4
7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8	나는 남이 지적할 때보다 내가 틀렸다고 여길 때 의견을 더 잘 바꾼다.	1	2	3	4
9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더 중시한다.	1	2	3	4
10	논쟁이 일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1	2	3	4
11	내 말이나 의견이 남의 비판을 받으면 바로 바꾼다.	1	2	3	4
12	내 계획이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 바꾼다.	1	2	3	4
13	주위의 말을 참작은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신에 따라 결정한다.	1	2	3	4

♣ 14-36까지는 현재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해당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 표 해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러한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 근심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1	2	3	4
15	부모님은 내가 미덥지 못해서 지나치게 당부하는 일이 많았다.	1	2	3	4
16	우리 부모님은 형제들 중 유독 나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다.	1	2	3	4
17	부모님은 내게만 문제만 없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	1	2	3	4
18	내가 처한 상황은 부모님이 전부터 입버릇처럼 말해 오던 그대로이다.	1	2	3	4
19	내 걱정이나 근심은 옛날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그대로이다.	1	2	3	4
20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대단히 불편할 거라 생각한다.	1	2	3	4
21	가정을 떠나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	2	3	4
22	나는 부모님 슬하에서 하루 빨리 독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다.	1	2	3	4
23	부모님과 자주 다투기 보다는 안 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1	2	3	4
24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왔다.	1	2	3	4
25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과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1	2	3	4
26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자기 본분을 다 했다.	1	2	3	4

27	우리 가족은 심각한 일이 있어도 가족 간에 금은 잘 가지 않는다.	1	2	3	4
28	가족 간에 말썽이 있어도 서로 상의해 가면서 잘 해결해 왔다.	1	2	3	4
29	우리 가정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다짐을 하는 일은 드물었다.	1	2	3	4
30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님은 차분하게 잘 처리 하셨다.	1	2	3	4
31	우리 가정은 대체적으로 화목하고 단란했던 편이다.	1	2	3	4
32	우리 가족은 각자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 주는 편이다.	1	2	3	4
33	나는 어릴 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34	우리 가족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도 잘 싸웠다.	1	2	3	4
35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1	2	3	4
36	우리 가족들은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1	2	3	4

♣ 다음 각 문항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숫자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종종 전공 선택을 잘못했다고 느낀다.	1	2	3	4	5
2	일주일에도 몇 번씩이나 나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	2	3	4	5
3	강한 사람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1	2	3	4	5
4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1	2	3	4	5
5	낯선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종종 내 삶은 무의미한 것 같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8	누군가에게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 몹시 힘들다.	1	2	3	4	5
9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 잘 생각이 안 난다.	1	2	3	4	5
10	나는 확실히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5
11	나는 일이 잘 안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1	2	3	4	5
12	나는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했다.	1	2	3	4	5
13	나는 종종 쓸데없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짜증이 난다.	1	2	3	4	5

14	나는 수업 중에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1	2	3	4	5
15	나는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꺼려한다.	1	2	3	4	5
16	내 일상은 흥미진진한 것들로 꽉 차 있다.	1	2	3	4	5
17	내가 보기에 미래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18	대체로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19	나는 종종 벌컥 화를 낸다.	1	2	3	4	5
20	나는 세상이 그저 스쳐지나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자주 든다.	1	2	3	4	5
21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혹스럽다.	1	2	3	4	5
22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3	뭔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	1	2	3	4	5
24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	1	2	3	4	5
25	확실히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가끔 든다.	1	2	3	4	5
26	때로 나는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5
27	나는 일단 화가 나면 성질이 고약해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1	2	3	4	5
28	나는 학교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29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의 이성 관계에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이성 친구가 있거나 과거에 이성 친구가 있었던 분들은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문항에 답 해 주시고, 이성 친구를 사귀어 적이 없으시면 이성 친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답 해 주세요.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여겨지는 번호에 ○ 표 해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파트너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1	2	3	4	5
2	때로 파트너는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게 대한 그의 감정을 바꾸곤 한다.	1	2	3	4	5
3	파트너와 가까워지는 것은 비교적 쉽다.	1	2	3	4	5
4	파트너가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1	2	3	4	5
5	파트너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	1	2	3	4	5
6	파트너는 내가 화나 있을 때만 나에게 주목하는 것 같다.	1	2	3	4	5
7	파트너는 나와 내 욕구를 잘 이해한다.	1	2	3	4	5
8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	1	2	3	4	5
9	파트너와 여러 가지에 대해 의논한다.	1	2	3	4	5
10	내가 파트너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파트너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11	내가 파트너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1	2	3	4	5
12	파트너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3	파트너가 내가 얻고자 하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 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	1	2	3	4	5

14	내가 파트너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그가 나에게 대해 같은 감정이 아닐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5	파트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1	2	3	4	5
16	파트너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편하지 않다.	1	2	3	4	5
17	파트너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만든다.	1	2	3	4	5
18	필요할 때 파트너에게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1	2	3	4	5
19	파트너를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20	내가 파트너에게 갖는 호감만큼 그도 내게 강한 호감을 가지기를 자주 원한다.	1	2	3	4	5
21	파트너와의 대인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다.	1	2	3	4	5
22	매우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파트너가 내게서 멀어지기도 한다.	1	2	3	4	5
23	파트너가 나를 떠날까봐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1	2	3	4	5
24	파트너는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	1	2	3	4	5
25	파트너가 잠시 떠나 있으면 그가 나 아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될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26	파트너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1	2	3	4	5
27	파트너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매우 편하다.	1	2	3	4	5
28	파트너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1	2	3	4	5
29	파트너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30	파트너에게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1	2	3	4	5
31	파트너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1	2	3	4	5
32	파트너와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1	2	3	4	5
33	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보통 파트너와 의논한다.	1	2	3	4	5
34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파트너와 나누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	1	2	3	4	5
35	파트너가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1	2	3	4	5
36	일단 파트너가 나에 대해 알게 되면, 그가 있는 그 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1	2	3	4	5